

부활 제 2주일

기도서 281면 (A해)

제1독서 : 사 도 2, 42-47

제2독서 : 1 베드 1, 3-9

복 음 : 요 한 20, 19-31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 21).

□강론



가난한 이의 예수

문 정 현 신부

교회의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은 이제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택해진 당면한 논리이다. 아마 하느님의 계시가 시대의 징표로 나타났듯, 교황들을 통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육이 그러하고, 세계 주교대의원회의나 대륙 주교회의의 또한 같은 맥락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히 메릴런 문헌(1968년), 푸에블라 문헌(1979년)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의 가르침은 아주 유명하다.

오늘날 '가난한 이'라 하면 정치·경제·문화·종교의 차원에서 어떤 부유층과 권력자에 의하여 지배되어지고 있는 어떤 계층이나 민족을 말한다.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이라면 교회의 구성원들 개인이거나 신심단체이거나 본당 혹은 교구가 사회의 '지배층'의 이권에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봉사하기를 포기하고, 대신 '밀바닥 층'과의 유대를 맺기 시작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흔히 교회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요청하다 보면 스스로 걸려 넘어져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게 일쑤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좀 쓰면 어떠냐?” 하고 정부지원을 뽐내다 보면 알면서도 스스로 '가난한 이'를 포기하겠다는 망발이다.

이 선택은 사회적 혜택이 전혀 없거나, 적은 계층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혜택이 없는 자는 '사람꼴'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신념이다. 이런 신념으로 살다 보면 가난의 원인을 알게 되고 가난한 이들이 모르던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 진정을 하고 메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배층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이적단체나, 용공분자로 몰아세운다. 여기서 교회의 입장도 드러난다. 교회도 가난한 이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거나 교회가 다른 입장이라면 가난한 이들의 소리를 싫어하고 종교적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어버린다. 이들과 함께 하는 사제도 '웃기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에 자주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의 일생이다. 지도층, 민중의 사회에서 회유(요한 19, 10) 강경(요한 18, 33) 양면으로 예수를 몰아세웠다. 지도층의 조작에 휘말린 민중들까지도 예수께 돌을 던졌다(요한 19, 6-14). 결국 예수는 요지부동 확고한 신념으로 무릎을 꿇고 살지 않고 서서 죽었다. 그의 죽음은 만민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발하여 승리하셨다.

자갈밭 비탈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아무리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한마음으로 모여 같이 빵을 나누고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여야 한다(사도 2, 42~47). (장제 천주교회)



2천원짜리 인생

“무식한 너희들이 하루 일당 2,000원이면 됐지, 그보다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 너희들은 2,000원짜리 인생 밖에는 안된다.”—참으로 무서운,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폭언을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새겨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리에는 「후레아 췌손」이라는 독일인이 경영하는 의류제조 수출업체가 있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투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12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인 관리자들의 일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 이 폭언에 근로자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다 한다. 화장실의 벽서(壁書)를 적발한답시고 회사의 관리직원들이 여자화장실을 노크도 없이 열어젖히고 카메라를 들여대는 현실에 근로자들은 수치를 느낀다고 한다. 매일 개인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작업전표제도 때문에 그곳의 근로자들은 숨들릴 여유조차 없다고 한다.

근로자들은 그들의 육체노동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그 댓가로 그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간다. 이러한 근로자들도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고, 인격완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헌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약자인 근로자들은 중속적인 근로관계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 농성자들을 해산시키려고 불어넣는 에어컨 바람앞에서, 그리고 막강한 경찰병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근로자들의 편에서 떨어진 노조 위원장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벗꽃처럼 화사해야 할 4월의 봄날’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처음부터 다시 ‘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숨 정 이 산책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기도
광주대교구 신부 12명

성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귀 석(바로로)

오늘날 우리는 젊은이들을 무서운 세대라고 할 만큼 어리 먼에서 청소년 지도가 어려운 시대이다.

학교에서만 아니라, 부모 역시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학교 교육은 인간 교육보다 우리 자신이 더 원하는 출세지향적 교육을 부정할 수 없다. 몇몇 학부형은 밤 늦게까지 잡아놓고 공부시키기를 요구하고, 그 성화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루 16시간 정도를 학교에 잡아놓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칭찬과 수고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강요된 생활을 매일매일하는 우리의 자녀가 탈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가정과 학교에서 도피의 길을 택해야만 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마음놓고 뛰어놀고 삶의 목적을 정립하도록 앞장서야 할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젊은이들을 수용하는 마음보다는 귀찮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나라와 교회는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사육되어질 것

이 확실하다.

이들을 보다 밝고 쾌기찬 젊은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다 계획적인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모 역시 학교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모습 즉 하느님 모습을 닮도록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선생님께 찾아가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이 젊은 세대가 마음놓고 대화하고 공부할 자리와 앉을 자리, 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회 공동체는 보다 적극적으로어야 한다. 오늘의 지도자는 (대부분 대학생) 중고시절 때 교회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교회의 젊은이 교육에 직접 참가하고 현 지도자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므로써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긴요하다. 넷째 지도신부는 지도자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냉전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제언해 드린다. (금암천주교회)

성서교실 ㉞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요한 20:25).

부활이란 「잠자는 자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반면(半面) 밖에 되지 않는다. 부활은 무한한 장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다운 의미의 부활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理論)적으로만 알 뿐, 생활의 실제문제가 아닌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 11:24-26). 예수가 부활인 동시에 생명이라고 선언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인 것이다. 여기에 부활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다. 부활은 하느님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을 생명이 있기에,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죽은 그를 하느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구유(具有)한 생명력으로 일어났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29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은 때부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과 외관으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불멸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성서는 하느님이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지켜 주신 것」(행 2:27)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主)님 안에서 성자(聖者)인 것이다. 고로 하느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썩지않게 하신다.

우리는 「외(外)적인 인간」이 날로 남아질지라도, 「내(內)적인 인간」은 날로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육체는 날로 약(弱)해지며, 고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생명의 도약(跳躍)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활의 설명(說明)이 있다.

예수의 부활을 놓고, 이론(理論)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험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요한 20:25).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도(傳道)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요한1:1 참고). 오늘의 교회에는 이 「체험」이 결여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는 것이다.



현대미용학원

- 자격증 • 해외이민
- 유학코스 • 연구반
- 피부미용

☎ 4-9206

코아백화점 옆

김금순(테레사)

각종 가스렌지
L.P.G 판매

한국 가스상사

☎ 3-1457
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생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바로로
신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교 구 소 식

☆ **축! 독서직·시종직 수여: 축하합니다**

시종직 수여자: 박종탁(마태오)-황등, 양석현(요한)-노송, 최용준(안토니오)-일실, 서정현(시몬)-일실, 강한욱(미카엘)-부안, 이사정(라파엘)-전동, 김진태(요한)-노송, 이명재(분도)-전동, 박종충(레오)-팔마, 한병현(필립보)-서학동
독서직 수여자: 양석현(요한)-노송, 김교동(베드로)-전동, 고훈호(베드로)-수류

1. **춘계 사제총회:** 29일(수)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2. **성소자모임:** 26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참가대상-중·고·대·일반
3. **신앙쇄신 대미정:** 5월 5일 오전 9시40분~오후 9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석대상-모든 교우들, 초청강사-최익철 신부님·김진소 신부님·지정환 신부님·박시몬 회장님·김발다살 회장님, 참가비-1천원(점심 자차 지참)
※ 오후 7시30분부터 「가라반달의 성모님」 영화 상영함
4. **수도성소 피정(여성):** 일시-5월 16일 오후 3시
주제-"추수 할 것은 많은 데 일꾼이 적다", 장소-센타 회의실, 회비-4천원
대상-고2이상 미혼여성
5. **전화번호 변경 안내:** 김종택 신부님 85-8748

□ **축! 영명: 성 필립보·야고버(3일)-성민호·김동준·박병준신부, 축하합니다**

10만인 성지순례

| 1코스: 금정→지명자산(오후 2시) | | | 2코스: 여산→천호(오후 2시) | | |
|---------------------|----|--------|-------------------|----|--------|
| 일 | 요일 | 담당 신부 | 일 | 요일 | 담당 신부 |
| 26 | 일 | 김준호 신부 | 26 | 일 | 김준호 신부 |
| 2 | 토 | 강덕창 신부 | 2 | 토 | 박종상 신부 |
| 3 | 일 | 현유복 신부 | 3 | 일 | 현유복 신부 |

✿ 잡 간!

☆ 이 두 권의 책을 교구에 바칩니다.

금번 교구설정 기념일을 맞이하여 두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하나는 18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전주교구 「교세 통계표」이고 또 하나는 1882년부터 1911년까지 전라북도에 주재했던 선교사들이 관할한 공소들을 현재의 지명으로 조사한 「지명조사 보고서」이다. 이 책들은 「전주교구사」 편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본자료이다. 이 두 권으로 우리 교구의 어제와 오늘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들의 간행비는 과거 대학생운동의 주역을 맡았던 선배들의 모임인 「토마스 아퀴나스회」와 전주시내 뜻있는 청년들의 모임인 「성암회」가 맡았다. 이로서 50주년 사업은 알려지지 않은 청년 단체들에 의하여 문화사업 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예는 한국교회에서 보기드문 현상이고 보면 우리 교구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

간행비를 담당한 두 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책을 교구에 바치는 증정식을 갖는다. 그런데 이 기회에 두 책의 편찬을 맡았던 김진소 신부가 전주교구의 역사를 중점 내용으로 꾸민 수상집 「신바람 사는보람」의 출판기념도 같이 갖기로 하였다. 위 두 단체에서는 뜻있는 분들을 초대한다.

1. 일시: 4월 29일(수) 오후 6시30분
2. 장소: 가톨릭센터 3층
3. 미사 후 증정식과 축하연

요십이(716) 김병오



□ 1분 명상

“빛을 발산하지 못하거든 빛을 비취주는 거울이라도 되라.”

- E. 와튼

명동피부과의원

베소라성서 강의

안 식 일

(마태 12:1)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센타 3층

강사: 김정원 신부

회비: 매주 1,500원

건강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충북 미원분당 발글, 최고의 생수(PH 7.6)

회원 모집중(선착순)
전주동우회 5-4205 (센타 2층)
이리 " 52-5595
군산 " 64-4481
대표 박병준 신부
가정도착가격 10ℓ 1,500원
청주교구장 인준단체입니다

선 물 의 집

* 여성용 약세사리
* 각종 원구
* 행사 및 결혼·회갑·뽕잔치

비디오 촬영 전문
교우님들의 이용바랍니다

입 형 락(안토니오)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금수장여관 앞)
☎ 2-3594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의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아오스명)

☎ 병원 ⑦266
자택 ⑥6417
전주 관동로 전주백화점→
다가교 중간지점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의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콘택트렌즈

원장 김훈열
전 은 주
(베로니카)
전주 교야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1.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2. 본당신부님 영명(야고버) 축일: 다음주일
3. 원장(문말지나) 수녀님 축일: 21일~30일
4. 공소미사: 오늘 오후 4시 30분
5. 모임: 재속형제회-오늘 오후 2시
6. 성체회: 생체조배에 빠지지 맙시다
7. 판공성사 누락자: 금주대로 보세요
8. 신학생후원회: 1주좌-1천원(사무실 접수)
9. 지난주 봉헌금: 1,701,000원 교무금: 1,451,500원

- 2. 미사시간 변경안내: 4월 27일~9월 30일
3. 예비자 교리: 성인-목요일 8시
4. 생활교리: 일요일 공식미사 후
5. 본당청소: 금주-평화의 모후, 차주-바다의 별
6. 수녀님 가정방문: 토요일 3시
7. 금주 구역미사·모임: 화-금요일 오후 8시
8. 모임안내: 사목회 총회-오늘 공식미사 후
9.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신평우 ②전점순
10. 지난주 봉헌금: 514,210원 교무금: 401,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1. 금주는 애령주간: 기도회 있음, 2차헌금 있음
2. 금주모임: 금성회·금암회-공식미사 후
3. 사목회: 차주 공식미사 후
4. 푸르실로 울드래야: 오늘 공식미사 후
5. 사순절 토끼저금통: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6. 공동체 목상회(M·B·W) 기초코스 교육
7. 전신자 성지순례: 6월14일 배문성지, 참가비-5천원
8. 판공성사 누락자: 평일미사 전·후에 보세요
9. 교무금·신축헌금: 50주년 분담금 납부에 관심을 갖읍시다
10. 감사: 신축헌금 박은자-5천원, 김종환-15만원, 김영환-5만원, 박정순-1만원, 송경희-4만원
11. 금주복사: 이창성·박희정 차주: 윤기환·최장수
12. 금주봉헌: 허영환 부부 차주: 김후철 부부
13. 지난주 봉헌금: 957,760원 교무금: 388,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성전 정화사업비 수입·납부에 성의를...
1. 공사관계로 인한 건
2. 5·6월은 본당에서 혼배 못함
3. 노인대학 개교준비 보류
4. 27일부터 미사를 강당에서 드림
5. 강당은 장소 협소하니 개개인 신주머니 필히지참
6. 금일 공식미사 후 전신자는 성당내 비품 전부를 창고로 운반함
7. 건축자재 하차 및 운반: 금일 중식 후 오후 2시 작업복 차림, 전신자 성당 정결 요망
8. 사목회: 5월 1일 오후 8시, 사목위원 미사 및 연회석
9. 부녀회: 5월 2일 오전 10시
10. 구역장 모임: 5월 2일 11시
11. 중고등부 교리: 5월 2일 학생미사 후
12. 5월 구역모임: 일시·장소 사무실에 통보 바람
13. 5월 첫주부터 시청각 강연 실시
14. 미사안내: 승거자의 모후
15. 금주 본당청소: 화-바다의 별, 토-셋벌의 모후
16.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이형수·김지자
17. 봉헌기도-박영근·장정진
18.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강원모·박봉자
19. 봉헌기도-정해수·정송자
20. 지난주봉 헌금: 854,800원 교무금: 634,5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상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희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1. 사목회 임시총회: 공식미사 후
2.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봉헌 사열식)
3. 교구 사목방문(감사): 28일 오후 3시
4. 구역·반회장 모임: 28일 오후 2시
5. 예비자 교리반 속개: 7일 저녁 8시 개강식
6. 유아세례: 다음주(3일) 오후 4시, 사무실에 접수바람
7. 금주 본당청소: 하늘의 문-5월 2일 오후 2시
8. 지난주 봉헌금: 1,383,170원 교무금: 280,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평일 미사시간 변경: 월요일 저녁 7시에서 오전 6시로 변경(27일부터)
2. 사목회 상임위원회: 5월 1일 저녁 8시
3. 첫영성체 교리 시작: 28일 오후 4시부터
4. 미시때 미사책과 성가집을 필히 지참하세요
5. 유아세례: 5월 3일 오후 7시
6. 수고하시겠습니다: 각분과 차장님
7.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교적 가져오신 신자들
8. 감사: 부활 대축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9. 박수녀님 피절: 기도 부탁드립니다
10. 차주전례: 독서-①이성용 ②최명자
11. 봉헌-박병택 부부, 해설-안남근
12. 안내-양기춘·나동진
13. 지난주 봉헌금: 665,76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본당의 날: 5월 24일(23일은 전야제 겸 성모의밤)
1. 모임: 본당의 날 준비를 위한 구역장 및 제단체 간